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성장파트너

보도시점 2026. 11. 2.(월) 배포 2026. 11. 2.(월) 10: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현장 연계 국제의료 전문인력 양성 확대

국제의료코디네이팅 인턴쉽과정 결과발표회 개최… 참여 의료기관·교육생 확대 및 현장실습 교육체계 강화



▲ 사진: 10월30일(금), 인재원 서울(강남)교육관에서 '2026년 국제의료코디네이팅 인턴쉽과정 결과발표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은 10월 30일 서울 강남교육관에서 '2026년 국제의료코디네이팅 인턴쉽과정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연계해 운영한 인턴쉽 교육과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생과 실습기관 담당자 간 현장 경험 및 의견을 나누며 향후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6년 국제의료코디네이팅 인턴쉽과정은 의료통역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분야의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해 의료현장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참여 의료기관을 2025년 6개 기관에서 2026년 10개 기관으로 확대해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했다.

□ 또한 올해는 의료통역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팅 현장실습 교육 가이드 매뉴얼 연구를 함께 추진해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는 실습교육 운영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육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과정은 사전 오리엔테이션 3시간과 의료기관 현장실습 64시간, 실습적용 결과발표회 3시간 등 총 70시간으로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 상황 의료통역 ▲의무기록 번역 ▲외래 및 예약관리 ▲마케팅 및 행정 ▲입·퇴원 관리 등 의료기관 실무 전반을 경험했다.

□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교육생들의 현장적용 결과보고서 발표와 실습기관 담당자들의 피드백이 진행됐으며, 기관별 실습 운영 소감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주요 경험과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향후 인턴쉽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의료통역전문인력 및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는 외국인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력으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교육 가이드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글로벌헬스케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의료해외진출교육부	책임자	부 장	최승희	(043-710-9323)
		담당자	주 임	김진성	(043-710-9326)